



공동체 소식



대림 제1주일

지극히 높으신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비오니, 일찍이 복된 안드레아 사도가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렸듯이, 이제는 주님 곁에서 저희의 영원한 친구자가 되게 하소서.



12월 기도지향

- 김호원(요한), 박정자(수산나) 가정
-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카타리나) 가정

대림시기

대림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대림’(待臨)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 말 ‘앗벤투스’(Adventus)에서 온 것입니다. 이 대림 시기의 첫 주일부터 한 해의 전례주년이 시작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의 생활로 그분을 맞이합니다.

신심미사

- 예수 성심 미사 : 12/6(금)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성모 성심 미사 : 12/7(토) 오전 10시, 미사 전 묵주의 기도

구역별 판공성사

- 12/5(목) : 2구역, 김호원 요한 형제님 덕
- 12/6(금) : 1구역, 박옥희 헬레나 자매님 덕
- 12/13(금) : 3/5구역, 양경직 돈보스코 형제님 덕
- 12/19(목) : 4구역, 박희영 카타리나 자매님 덕

☞ 오후 7시까지 해당 가정에 모여 고해성사가 진행되는 동안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대림시기이므로 조출한 다과 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대림 특강

- 일시 : 12/15(일) 중심미사
- 주제 :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 오클라호마 공동체의 오정 보나벤투라 신부님(미리내 천주 성삼 수도회)께서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타

- 지난 주일, 캔사스 대주교님의 사목방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평협과 단체장님들, 그리고 미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배송료 포함, 1년 구독료 60불입니다.
- 주보 편집장으로 김원철 바실리오 형제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박동희 안나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울	성 체	마 침
88	217	156/170	91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정병훈(보니파시오)	김태중(예레미아)
	안지영(카타리나)	문예나(요 안 나)
차주	정수한(베 드 로)	이우영(가브리엘)
	정예찬(미 카 엘)	이원준(요 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카타리나)	정수한(베 드 로) 김주연(세실리아)
차주	김명은(안 젤 라)	차호섭(요 셉)
		최선운(마 리 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조경희, 김말자, 배복선, 신혜경
차주	최선운, 신혜경, 정선식, 서정애, 김수연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1/24	162명	658불	0불
사목방문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회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면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곧 참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도록 합시다.

성화해설

겟세마니에서의 고뇌 중 잠든 제자들
(두치오, 1308-1311년, 나무에 템페라, 피렌체 두오모 박물관, 시에나)

오늘은 그리스도의 강생과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의 첫주이며 서울대교구 생명수호주일입니다. 구세주의 강생은 인간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탄은 모든 출생의 완전한 의미를 밝혀주는 것으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의 토대가 됩니다. (「생명의 복음」 1항) 인간생명의 가치가 드높여지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모든 인간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늘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이사 2,1-5 <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들이신다. >



기 빼 - 하 며 - 주 - 님 의 집 - 으 로 가 리 - 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제 2 독 서 : 로마 13,11-14ㄱ <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 마태 24,37-44 <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

쉐 마

“깨어있어라!”



12월에는 모임이 많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해서 보내자는 송년회, 그동안의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자는 망년회 자리가 빈번하지요. 신앙인들에게 12월은 무엇을 보내고 떨쳐버리기보다는, 누구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란 매해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시름거리를 떨쳐버리려는 사람은 술에 취하기 쉽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려는 신앙인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미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들다 보니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 뵙지 못하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 전 4주간의 대림절 동안에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집중적인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깨어 준비할 때 2천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때가 바로 진정한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하게’ 주님을 만나지만, 저세상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 만나게 될 것입니다.(1코린 13,12 참조)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이 최종적인 만남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만남의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하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온 생애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비롭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 한평생의 공로와 과실이 낱알이 드러날 것입니다. 공로가 많으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만, 과실이 더 많으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집회서의 말씀대로 이런 심판의 순간을

잊지 않을 때 현재의 삶에 좀 더 성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집회 7,36)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빛의 갑옷’을 입고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제2독서)

누구나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주님과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잔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정의와 사랑의 주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전쟁이 완전히 사라져서 평화가 넘치는 잔치(제1독서),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됩니다.

주님을 뵙고, 그분의 천상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이 갈망의 힘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분께 희망을 두며, 그분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천상잔치에는 우리를 아끼는 수많은 친지들이 기다리고 있고,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우리를 애타게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잔치 초대장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 서울대교구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마중물

자신을 파괴하는 7가지 큰 죄

인도의 성자 간디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7가지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입니다. 이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사람이나 사물을 조작하는 기법, 즉 시장이나 자산을 조작하여 이익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성품이 결여된 지식입니다. 얕은 지식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박식하지만 원칙에 기초한 성품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내면적인 성품 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식 개발은, 마약에 취한 10대 청소년에게 고성능 스포츠카를 맡기는 것만큼 무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육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희생이 없는 종교입니다. 교회활동은 희생 없이도 가능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요즘 신자들은 종교는 바라고 있으면서도 희생은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단식을 통해 어떤 의미를 되새긴다거나 혹은 익명의 자선 행위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해’ 교육자료

제 7절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65. 예수님께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언자들과 세례자 요한에 뒤이어 예수님께서서는 설교 중에 마지막 날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각자의 행동과 마음속의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고의적 불신이 단죄받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속자로서 인간의 모든 일과 마음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충분한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권한을 획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요한 5,22)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으며,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은총을 거절한 사람은 저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며, 각자가 한 일에 따라 받을 뿐 아니라, 사랑의 성령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영원한 저주를 자초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셔서 마음속에 감추어진 의향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그리고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에 따라 갚아 주실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78-682항).

- 『저는 믿나이다』, 천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